

월요광장



문요한
정신과 의사

후배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병원이자 다. 7~8년 전에 재정이 어려운 병원을 인수해서 한동안 고생이 많았다. 그러나 워낙 실력 있고 성실한 친구라서 병원은 안정을 찾아 갔다. 그런데 정작 안정이 되고 나자 작년 말부터 일하기가 힘들어 졌다고 한다. 너무 지친 것이 아닌가 싶어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다시 병원에 나가게 되면 진료하기가 싫어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친한 동기와 선배들을 붙잡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나 귀담아 들어주는 이가 없었다. 한쪽소리로 “내가 배불러서 그래. 병원이 어려워 보라. 그런 소리가 나오냐”라는 것이었다. 후배도 인정했다. 그냥 직원들 월급 잘 주고, 집에 생활비만 갖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줄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조심으로 돌아가자!’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다. 삶에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이어 가던 후배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체코어에 ‘리토스트’(Litost)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자신의 고통을 갑자기 깨닫게 된 사람의 고통’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한 고통은 정신적이다. 이를테면 나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착각이었음을 느낀 것이다. 리토스트는 실존적 고통을 말한다. 그동안 잡다하고 바쁜 일상에 갇혀 정신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삶의 허무와 존재의 결핍을 느낀 것이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히딩크의 이야기처럼 배고픔은 상징적 의미이다. 인간은 몸의 배고픔만큼이나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이다. 후배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라 배고픈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극심하게 존재의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자신

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 했다. 과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와 이야기를 하다가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이 떠올랐다. 타이틀로 떠난 화가 폴 고갱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서머셋 몸(Somerset Maugham)이 쓴 소설이다. 소설에서는 고갱 대신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그는 주식 중개인으로 처자식과 단란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한다. 부인은 바람이 나서 가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풀어 행방을 찾는다.

그런데 세상엔! 그는 파리의 여인숙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어느 날 강한 리토스트를 느꼈고, 그가 스스로 찾은 치료제는 그림이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제목에서 ‘달’과 ‘6펜스’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달’은 영혼을 그리고, ‘6펜스’는 물질의 비유일지 모른다. 작가는 인간이란 물질적 소유 이상으로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몸의 허기를 느끼면 우리 눈에는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존재의 허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존재의 결핍감을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고 영혼에 기쁨을 주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행위의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라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라틴어에서는 ‘오티움’(Otrium)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겐 동식물을 기르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암벽 등반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겐 춤이나 시작(詩作), 혹은 뜨개질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오티움을 발견한 사람만이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지루하거나 고달픈 일상 속에서도 자기만이 숨 쉴 수 있는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오티움이야말로 삶의 불안, 권태, 허무, 그리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묘약인 것이다.

나는 일상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오티움을 발견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건네고 후배와 헤어졌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후배 소식을 들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손을 놓았던 기타를 다시 잡고 새로운 밴드 멤버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음악이 그의 리토스트를 치유하고 그의 영혼에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법조칼럼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할아버지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았다. 꼭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담 테이블에서 차분히 사연을 들어 봤다.

할아버지는 노년에 낙향해 여유있는 시골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경매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집과 토지를 소유했다. 본래 있던 집이 너무 낡고 오래돼 살기에 불편한 탓에 허물고 새로 짓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다. 옆집과 경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새로 집을 짓기 위해 측량한 결과 본래 있었던 할아버지 소유 건축물이 옆집 토지 경계를 침범해 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해와 평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집이 옆집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았을 리 없다. 더구나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부는 본래 타인의 소유였다가 할아버지를 혼란스럽게 했다.

옆집 주인은 응당 토지 측량 경계대로 그 땅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할아버지는 경매로 정당하게 구매한 땅이고 본래 수십 년간 집이 있었던 자리니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 아니냐고 맞섰다.

분쟁을 의식해서 새로 지을 집의 위치는 경계 부분에 두지 않았지만, 이내 건축 과정에서 옆집 주인은 관계 행정청에 이런저런 민원을 넣어 할아버지를 괴롭히고 있는 모양이었다. 적절히 가격을 쳐 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제안도 거절됐다.

이쯤 이야기를 들으면 변호사는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법적 해결책이란 것이 정말 이 할아버지를 돕는 해결책일까? 법적으로 해결 하지만 분쟁은 심화하고, 그 결과를 보는 과정이 적지 않게 고달프며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시골 마을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평판

은 또 어떻게 될까. 옆집 주인과 노후를 계속 함께해야 할 것인데 하루하루 서로 얼굴을 어찌 볼 것인가. 건축 과정에서 옆집 주인은 계속해서 ‘딴지’를 걸지도 모르다. 건축이 지연돼 발생하는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결국, 할아버지가 생각하던 여유 있는 노년의 시골 생활은 분노와 원망이 점철된 투쟁의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고, 어찌 면 눈물 감는 그 순간까지 옆집 주인을 옥하며 생을 마감할지도 모를 일이다.

울고 그림을 따지는 것이 언젠가부터 매우 힘들고 어렵다. 그림에도 사회와 정치는 개인 또는 이익 집단의 이익을 극명히 주장하고 서로 투쟁해야지만 합리적인 이해와 조정이 이뤄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인 양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분법적인 판단 기준이 만연한 세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말과 행동에서 오히려 편협하거나 극단적인 사고 방식과 세상살이 기술, 정치 기술을 발견할라치면 소스라치게 놀란다.

혹자는 ‘달리는 기차 위에 종립은 없다’는 편견을 할지도 모르겠다. 정치에 있어

서는 51% 정치 이론에 따라 49%를 잡으려다 잡은 줄 알고 있었던 51%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결국 자신의 노선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처신을 할 것인지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생각에 허점이 있거나 반대되는 생각에 타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장을 수정하지 않고 목소리나 표현 수위를 높이는 건 눈 한 번 질근 간담했다는 것이 아닐까.

양심에, 그리고 균형 감각에 한 번 머뭇거리면 그 다음은 쉽다. 모든 중독이 그런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그동안의 다툼에 대해 옆집 주인과 마음을 내놓고 이야기해 보실 것을 권했다.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년에 평안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러셔야 한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직접 도와드리겠노라 말씀드렸다.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이 ‘맞는 말을 들었다’는 듯 온화하게 누그러졌고, 상당료까지 지급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할아버지와 옆집 주인이 마음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기고



김한규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다. 조롱박이나 상자 안에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은 후 그 안에 먹이를 넣어 둔다. 먹이를 찾던 원숭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확인하고 욕심껏 손에 쥘다. 그러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원숭이는 음식을 잡고 있는 손을 결코 놓지 못하고, 먹이를 쥔 채로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쓴다. 먹이만 손에서 놓으면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결

버려야 새로워진다

국은 원주민에게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만다.

위험이 닥쳐도 오래된 관행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불행한 결과이다.

가정에서도 살림이나 물건을 버리기 아깝다고 습관적으로 모아 두기 쉽다. 하지만, 나중에 이사하거나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진작에 버릴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하게 버릴 때 공간을 얻게 되고 새로운 희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과 일상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살아 온 방식과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 패턴에는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흔히 말하는 관성은 기존의 것을 고집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데서 기인한다.

기존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할 때 불안과 걱정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지 못하게 매우 서서히 다가온다.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끓는 냄비 안의 개구리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시간 투자와 노력으로 획득한 과거의 핵심 역량도 미래의 신규 사업 추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지금의 애플을 만들어 준 아이팟을 고사시켰고, 후지필름은 필름사업을 버리고 화장품 및 제약 업체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였다.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훌륭함은 위대함의 최대의 적’이라고 표현하였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순간 위기는 시작되는 것이다.

번데기는 몸부림치며 껍질을 벗어던져야 나비로 화려하게 변신하고, 나무는

정성 들여 피운 꽃을 떨어뜨려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처럼 때로는 버려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잘못된 과거를 버려야 희망찬 미래를 얻을 수 있고, 낡은 구태와 관습을 버려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성을 깨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추선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데 연료의 거의 대부분을 소진한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야 우주를 향해 순조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 과거의 관성이나 습관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조직이든 개인이든 미래는 없다. 성공은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社說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서둘러야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지난주 재가동된 데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도 ‘이번이 개헌·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의 개헌 논의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극복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열린 ‘87 체제’는 독재 국가에서 민주 사회로 전환을 이뤘지만 중앙집권 대통령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 체제, 수도권 집중 구조의 고착화를 불러왔다. 특히 지방 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 권한이 대부분 중앙 정부에 집중된 과잉 중앙 집권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부르짖고 있다.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활용해 지방 정부와 의회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이들은 전국을 돌

며 권역별로 국민 결의대회와 시민토론회를 연다고 한다. 국민의 온전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도 시급하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연동형 비례제나 한 지역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오는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 등을 주제로 집중 토론회를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새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현안 과제다. 국민과 국회의원 70~80%가 찬성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30년 만에 맞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일을 기약하기 어렵다. 여야는 당리당락을 떠나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염치 내던진 의원들의 ‘제 밥그릇 늘리기’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보좌기에는 하나 면 모숨을 보인다. 창피하지 않은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이 많아서, 보좌진이 부족해서 의정 활동이 힘들다는 주장을 펴 거라면 의원직을 그만두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할 사람은 당신들 말고도 많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관들의 급여를 빼돌린 의원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정부의 공무원 증원엔 그렇게 반대하더니 염치 따위는 어디 다 내던졌는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다.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 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 입만 열면 민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들, 국민은 국회의원 입부터 줄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고, 사소한 일도 말꼬리를 잡으며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도 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하나 면 모숨을 보인다. 창피하지 않은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이 많아서, 보좌진이 부족해서 의정 활동이 힘들다는 주장을 펴 거라면 의원직을 그만두라.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할 사람은 당신들 말고도 많다.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거나 보좌관들의 급여를 빼돌린 의원이 어디 한둘이었던가. 정부의 공무원 증원엔 그렇게 반대하더니 염치 따위는 어디 다 내던졌는가.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가 넘고, 보좌진도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많다. 세비도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1억 4000만 원)이며, 국회 의원 한 명이 쓰는 세금은 연간 6억 원이 넘는다. 입만 열면 민의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들, 국민은 국회의원 입부터 줄여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無 等 鼓

“교회는 그리스도 이 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험버는 목사의 말이다.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퀴비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꼬집었다 한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주장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다. 16세기 독일의 신학 교수이자 사제였던 루터는 95개 조 반박문을 내놓으며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겼다. 프로테스탄트로 명명되는 이 종교 개혁은 당시 독일의 ‘주교 선거’에서 비웃겼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 막대한 선거비를 지출한다. 빚을 갚을 길이 없던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면죄부를 고안했고, 마침내 교황에 판매권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한금 꺾자 안에 넣은 돈이 쪼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당시의 슬로건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귀족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면죄부가 불타나게 팔

러 나갔음은 불문가지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결코 매매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 판매를 강력히 규탄했다.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되는 기독교는 그 자체로 개혁의 역사다. 그러나 작금의 일부 개혁을 ‘대기업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보듯 외적인 성장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 루터 당시의 부패한 교회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들려온다. 최근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루어진 세습은 종교 개혁 500주년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절차도 정당한 데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갖게 했다.

면죄부가 중세 교회의 ‘죄책’였다면 교회 세습은 21세기 죄책에 다름 아니다. 교권(敎權)의 사유화는 정치권력을 사유화했던 부패한 정권의 형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더욱이 영적인 것의 사유화는 십자가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 가운데 하나다. 종교는 정치든 모든 개혁의 출발은 가까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는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